

# 가족여가활동 · 가족식사활동 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Frequencies of Family Leisure and Meals and Family Closenes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ociality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 수 유 계 속\*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김 수 화  
석사과정 임 정 현  
석사과정 최 혜 림\*\*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채 희 화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Gyesook Yoo*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 Course Su Hwa Kim*

*Master Course Jung Hyun Lim*

*Master Course Hye Rim Choi*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 Hee University  
*Master Course Hee Hwa Chae*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frequencie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and family meals and family closeness on the sociality of elementary

\* 주저자: 유계속 (dongrazi@khu.ac.kr)

\*\* 교신저자: 최혜림 (y1052h@naver.com)

school children. From October 1 to November 30, 2010, data were collected from 290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residing in Seoul and Inche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ouble-income and single-income families in the frequency of family meals; single-income families enjoyed fewer family leisure activities and more family meals than double-income families did. Second, the levels of family closeness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by the frequencie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and family meals, and family meals mor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s of family closeness than did family leisure activities. Finally, the frequencie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and family meal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s of children's sociality, as did the levels of family closeness. In conclusion, family leisure and family meals are important activities that enhance family closeness and children's sociality.

Key Words : 가족여가활동(family leisure activities), 가족식사활동(family meal), 가족친밀도(family closeness), 초등학교 자녀(elementary school children), 사회성(sociality)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높은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 증가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가족 간 대화는 더욱 부족해지고 가족의 친밀감과 유대감은 감소한다. 가족 내 분위기와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도 많은 경우 가족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 관련연구들에서 가정 환경, 특히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시간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Robertson(1999)은 여가와 가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이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을 때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모와 비행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 공유를 권장하였다. 가족이 공유

하는 시간동안 가족구성원은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애정의 표현이나 의견 교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력은 높아지고 자녀는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인간은 일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여가의 시간을 갖게 된다. 여가활동은 개인 자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구성원에게도 관계증진 및 융화에 도움을 주고 삶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휴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가의 필요조건이 시간이라면 오늘날과 같이 부모는 사회생활로, 아이들은 학업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가족의 여가활동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가는 각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과 번영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여가는 인간생활의 중요 요소이며 개인과 사회를 이끌어 준다고 할 수 있다(양영아, 1996). 그러므로 가족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elly(1983)는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위한 장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에 기초한 여가활동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책임감의 습득을 갖게 하며 여가의 일탈화 현상에 대한 좋은 방지책이 된다고 하였다(홍성화, 2003). 지영숙 외(2002)는 가족들이 함께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여가활동은 여가 본래의 기능 외에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가족 공동의 것으로 만들며, 가족에게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다. 또 가족여가활동은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므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한다(이민아·김순옥, 2007).

한편, 최근 우리나라 가족의 식생활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부모의 맞벌이가 증가, 학교 외의 사교육 및 개인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보다 각자 외식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2008년 국민영양조사에 따

르면 학령기의 아동(12~18세)들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식사 비율이 아침 44.5%, 점심 98.7%, 저녁 37.7%로 나타났다.

1988년 하버드대 연구진은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홈 스쿨 스테디’ 연구에서 조건이 같을 때, 유아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는 가족식사의 횟수와 식탁에서 의견 개진이 활발한가, 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소득층이거나 학습적 환경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가족식탁에서 보낸 시간이 많은 유아들은 중산층 혹은 학습자극이 풍부한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능가했다(SBS스페셜제작팀, 2010).

이상과 같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의 중요성을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국내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체육학 분야와 여가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이나 주부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특히 가족학 분야에서 가족여가활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족식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식품영양학 분야에서만 매우 미비하게 연구되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여가활동, 가족식사활동과 가족친밀감이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가족여가활동이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의 증대라는 시류를 반영하듯, 서구의 경우 일찍부터 여가 연구가 하나의 학문 영역을 구축하였고,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경부터 이 분야의 연구물

들이 축적되어왔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주로 자신의 학문 분야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가를 주로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로 보았다. 이는 대다수 연구가 주로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스포츠학 관련 분야에서 진행된 까닭에 그 초점이 ‘사회구조’ 보다 ‘개인행위자’에게 맞춰져 있던 탓이다(남은영·최유정, 2008). 특히 청소년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여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구성원들의 실태를 밝히거나 관련 변수를 규명하는 등 개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여가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써 여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가욕구가 증가하는 한편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가활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윤소영·윤지영, 2003).

가족여가활동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즉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활동이나 시간을 말한다. 가족에 기초한 가족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의 습득을 향상시키므로 함께 사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여가활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지영숙 외, 1999).

가족여가활동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다양하다.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보면 김외숙(1997)은 핵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동거중인 남편과 아내의 부모 형제까지 포함하였으며 홍성희(1996)는 가족의 다수나 가족원의 이해와 공통된 관심 유무 등이 여가활동 참여에 자원 또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핵가족 및 그와 동거하는 부모, 형제 중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지영숙과 이태진(2001)은 여가에

참여하는 가족원을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기에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부모 모두와 자녀 중 한사람이나 자녀모두가 함께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윤소영·윤지영, 2003).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활동을 자녀 양육기에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부부와 자녀모두가 함께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부부 한사람이나 모두와 자녀 중 한사람이나 자녀모두가 함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rthner와 Mancini(1990)는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의 심리적 만족, 가정의 안정성 및 가족의 결속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이 여가를 함께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능력 개발, 자아실현 등 여가활동 본래의 기능 이외에 특유의 기능을 갖는다. 즉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개별화 되어 가는 생활에서 가족적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가생활방식의 개발 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족의 요구이자 중요한 경영자세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지영숙 외, 1999).

천혜정(2004a)은 우리나라 가족이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의 유대를 위하여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밝혔고 세대별 차이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들이 유대, 휴식의 동기에 의해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가족여가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높아졌고 가족여가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할수록 부정적인

효과는 높아졌다. 김필숙과 김태현(2004)은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 연구에서 여가활동을 즐겨하는 이유로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서(32%)’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19.3%)’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여가활동 참여대상은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52.1%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참여빈도는 성별, 교육, 직업,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윤소영·윤지영(2003)는 핵가족부부의 가족여가활동 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공유 활동시간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여가 참여빈도와 가족건강도와외 관계를 살펴본 천혜정(2004b)의 연구에서 가족건강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인들은 집안일, 운동, 외식, 놀이시설, 문화시설, 가족여행, 종교활동 등이었다. 즉, 가족들이 간단한 집안일과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할수록, 외식을 함께 할수록, 지역사회 놀이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함께 이용할수록, 가족여행을 함께 할수록, 그리고 종교활동을 함께 할수록 가족건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abriskie와 McCormick(2001)은 가족기능에 있어서 가족여가유형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여가유형을 비교적 덜 계획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형식적으로 일어나며 자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핵심여가활동과 덜 일상적이고 덜 자주 일어나는 활동으로 비교적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균형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핵심여가활동을 많이 할 경우 가족 응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균형여가활동을 많이 할 경우 가족 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의 여가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박진영(2007)의 연구에서 고등학교의 여가참여는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들이 여가참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이라는 매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단위의 여가가 대상이 아니라 개별여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가족단위 여가가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박상호(2001)는 고등학교의 여가활동참여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 참여기간이 길수록 사교성이 발달한다고 하였으며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나 단체 활동 등의 적극적인 활동 형태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ertson(1999)은 가족과 여가 연구에서 여가로서 비행을 저지르는 남자 청소년들의 가족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특징 중에는 10세가 지나서 청소년기 동안 가족 공유의 여가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 행동에 대해 부모가 무관심하였음을 밝혔으며, 여가 동기와 관련하여 여가 교육자로서, 여가의 제공자로서 또한 여가의 촉진자로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의 여가 활동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천혜정(2004b)은 가족여가활동 참여로 배우자 사이의 친밀감 및 애정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녀들은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으로 배우자 사이가 평등해진다고 배우자 사이의 친밀감 및 애정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의 유대를 위하여 가족 여가

에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민경(2008)은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체험함으로써 가정보다 더 큰 사회에 대한 인지와 학습을 하게 되고, 지역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족여가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활동이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가족식사활동이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식은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가족이라는 개념과 생활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만들고,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며(이영미 외, 2009; Weinstein, 2006), 영양상 균형있는 식사를 하게 된다(조용주, 2007). 가족식은 단지 함께 먹는 행위만이 아닌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과 실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기능 등을 배울 수 있다(Weinstein, 2006). 또한 가족식사를 자주하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 및 가족식사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 태도 및 행동이 가족식사의 횟수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완 외, 2008).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 자각증상은 증가하였고, 긍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였다(성순정·권순자, 2010).

가족식사활동이 정신적·사회적 및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에서 조용주(2007)는

규칙적인 가족식사활동은 긍정적인 정신사회 기능 발달 및 가족 간의 대화가 늘게 되어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김미선(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식사 횟수가 높을수록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지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해원과 최경옥(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제때에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는 가족기능을 매개로 사회성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녁 식탁에서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화면을 분석한 Boyum과 Parke(1995)의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시간에 보여 지는 부모의 감정표현의 빈도, 강도, 명확성이 자녀의 사회성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아동이 제 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관심, 지지 유대감, 안정감, 적응력의 결손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곧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이혜원·최경옥, 2010)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식사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식사활동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많은 요인들의 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가족식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족식사활동에 대한 계획, 준비, 대화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이영미 외, 2009; Kidshealth, 2008).

현재 국내에서는 가족식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영양학적인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가족학 분야에서 가족식사활동이 가족구성원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 3. 가족친밀도가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박의순(1990)은 친밀감이란 지각된 인간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애정적 결속의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심리적·정서적인 가까움의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주관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움, 따뜻함, 신뢰, 관심, 이해, 존경, 도움, 대화, 연속감과 같은 애정적인 결속(Bengtson & Schrader, 1982), 호의적인 감정(서동인, 1991)을 말한다. 즉, 가족친밀도란 다른 가족원과 친밀하며, 신뢰하고 신뢰를 받고, 존경하며 존경받는다는 지각을 포함하며, 상호간에 공평함과 이해의 감정적인 측면도 포함한다(Bengtson & Cutler, 1976). 강완숙·유안진(2000)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애정, 정서적 위안과 지지 정도로 나타냈다.

가족친밀도가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등에서 신미숙(2010)은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확장시키며 자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윤경선(2009)의 부모-자녀 친밀성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친밀성의 상위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개방적임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지효숙(2007)의 연구에서 아버지-자녀 간 친밀도와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과의 상관에서는 친밀도와 사회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자녀 친밀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인창(2009)의 연구결과 역시 가족친밀도가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 자녀관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고 왜곡 없이 나타내는 관계가 형성될 때 자녀는 자신과 남을 모두 배

려하며, 서로의 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친구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백윤미, 2005).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의 빈도와 가족친밀도는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중 초등학교 고학년(4, 5, 6 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2곳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각 학생을 통해 해당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301부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서는 290부를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설문지는 부모용과 아동용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부모에게는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그리고 가족친밀도에 관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고, 아동에게는 사회성에 관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별 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조사(1995)’에서 분류한 여가활동유형인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관광·행락활동, 놀이활동 여섯 개 유형에 종교활동과 쇼핑활동을 추가하여 총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유형의 평균 월당 활동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가족식사활동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문항과 동일한 형식으로 함께 식사 준비, 가정 내 함께 식사, 식사 후 함께 뒷정리, 식사 후 후식, 함께 외식의 총 5문항으로 평균 주당 활동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귀성(1999)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아동의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 등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5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6$ 였다. 이 질문지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친밀도에 관한 문항은 ICPS-FFS(Noller 외, 1992)의 친밀감 척도 21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1$ 였다. 이 질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여가활동의 월별 평균횟수 및 표준편차와 가족식사활동의 주별 평균횟수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2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t-test,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인학력, 남편학력, 아동학력, 맞벌이를 통제하고 독립변인으로 여가활동과 식사활동의 하위영역 전체(여가활동: 스포츠, 취미교양, 오락활동, 사교활동, 관람감상, 관광행락, 쇼핑활동, 종교활동, 식사활동: 함께준비, 가내식사, 함께정리, 식후후식, 함께외식)와 가족친밀도가 사회성의 각각의 하위영역(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맞벌이 시행 유무와 자녀의 성별, 학년, 자녀수, 그리고 월 소득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부모의 나이는 부인 평균 42.89세, 남편 평균 40.64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부모 둘 다 대학교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인:164명, 남편:160명). 부모의 직업은 부인은 전업주부가 141명(48.6%)이었고 남편은 전문



〈표 1〉 연구대상자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290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특징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부인학력	고졸 이하	46	15.9	남편학력	고졸이하	33	11.4	부인직업	관리직	14	4.8
	전문대졸	38	13.1		전문대졸	26	9.0		전문직	52	17.9
	대학교졸	164	56.6		대학교졸	160	55.2		사무종사직	24	8.3
	대학원졸	34	11.7		대학원졸	63	21.7		서비스종사자	18	6.2
	결측값	8	2.7		결측값	8	2.7		판매	13	4.5
부인직업	관리직	14	4.8	남편직업	관리직	59	20.3	기능원 및 관련기능	2	.7	
	전문직	52	17.9		전문직	86	29.7	전업주부	141	48.6	
	사무종사직	24	8.3		사무종사직	46	15.9	기타	22	7.6	
	서비스종사자	18	6.2		서비스종사자	27	9.3	결측값	4	1.4	
	판매	13	4.5		판매	23	7.9	부모 맞벌이	맞벌이	146	50.3
	기능원 및 관련기능	2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14	4.8		홀벌이	140	48.3
	전업주부	141	48.6		장치기능 조작 및 조리	4	1.4	결측값	4	1.4	
	기타	22	7.6		기타	21	7.2	자녀 학년	4학년	115	39.7
결측값	4	1.4	없음	1	.3	5학년	79		27.2		
자녀 성별	남	132	45.5	결측값	9	3.1	6학년		95	32.8	
	여	158	54.5				결측값		1	.3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령	부인	42.89	3.58	26-56	월소득(만원)	674.25	418.05	30-4000			
	남편	40.64	3.52	24-54	자녀수(명)	1.90	.656	1-5			

직이 86명(29.7%)으로 가장 많은 수치가 나타났다. 맞벌이 시행은 50.3%로 홀벌이 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으며, 자녀의 성별은 여자 어린이가 158명으로 설문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4학년이 115명(39.7%), 5학년이 79명(27.2%), 6학년이 95명(3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2.89세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40.64세였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평균 6.742.500원이었으며 자녀수는

평균 1.9명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대상자의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 활동 빈도

가족여가활동을 기술통계로 분석해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쇼핑활동이 월평균 5.47회, 취미교양이 월평균 5.45회로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은 월평균 1.8회로

〈표 2〉 가족여가활동 빈도

N=290

여가활동	평균(회/월)	표준편차	범위
스포츠	5.13	6.1	0-52
취미교양	5.45	7.12	0-60
오락활동	3.3	5.50	0-30
사교활동	3.2	4.11	0-36
관람감상	1.65	2.71	0-28
관광행락	1.98	2.79	0-21.67
쇼핑활동	5.47	5.32	0-52
종교활동	1.8	3.12	0-20

〈표 3〉 가족식사활동 빈도

N=290

식사활동	평균(회/주)	표준편차	범위
함께 식사준비	2.06	2.40	0-14
가정 내 함께 식사	5.44	3.29	0-24
식사 후 함께 뒷정리	1.81	2.14	0-10
식사 후 후식	3.69	2.63	0-16
함께 외식	1.06	.10	.02-10

가장 낮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가족식사활동을 기술통계 분석해본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 내에서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주당 평균 5.4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께 외식하는 횟수는 주당 평균 1.06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부모연령, 부모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맞벌이여부, 아동학년)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의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가활동 빈도는 부인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약하게나마 유의미(p<.10)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 시행 유무에서도 유의미(p<.05)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홀벌이 일수록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식사활동 빈도는 남편의 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약하게나마 유의미(p<.10)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식사활동 빈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여가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시행 유무에서도 유의미(p<.05)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맞벌이 일수록 가족식사활동의 빈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녀수에서도 식사활동에 유의미(p<.05)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식사활동의 빈도가 더 높다는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의 빈도 차이

N=290

변인		가족여가활동		가족식사활동	
		M(SD)	t 또는 F	M(SD)	t 또는 F
부인 연령	20대 (n=1)	27.00(.)		15.75	
	30대 (n=110)	26.74		13.95	
	40대 (n=163)	25.88	.218	14.47	.365
	50대 (n=5)	19.70		11.21	
	결측값 (n=11)				
남편 연령	20대 (n=1)	27.00(.)		15.75(.)	
	30대 (n=35)	20.94(14.64)		13.82(7.27)	
	40대 (n=227)	26.87(20.81)	.918	14.37(7.95)	.209
	50대 (n=15)	25.11(12.61)		12.93(6.29)	
	결측값 (n=12)				
부인 학력	고졸이하 (n=46)	19.69(13.90)		12.25(7.86)	
	전문대졸 (n=38)	25.60(19.78)		14.79(9.30)	
	대학교졸 (n=164)	27.56(17.96)	2.496 <sup>†</sup>	14.32(7.20)	1.095
	대학원졸 (n=34)	24.98(15.43)		14.36(6.36)	
	결측값 (n=8)				
남편 학력	고졸이하 (n=33)	20.29(13.12)		11.19(7.61)	
	전문대졸 (n=26)	24.36(21.28)		14.90(9.55)	
	대학교졸 (n=160)	27.69(20.15)	1.379	14.12(7.73)	2.299 <sup>†</sup>
	대학원졸 (n=63)	26.02(20.47)		15.41(6.60)	
	결측값 (n=8)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200 미만 (n=3)	30.42(10.30)		9.33(4.04)	
	200 이상~300 미만 (n=15)	23.11(13.59)		12.21(4.80)	
	300 이상~400 미만 (n=25)	21.72(15.26)	.515	11.90(7.78)	1.184
	400 이상~500 미만 (n=19)	26.69(14.11)		14.71(7.71)	
	500만원 이상 (n=197)	26.02(17.70)		14.37(7.50)	
결측값 (n=31)					
맞벌이	홀벌이 (n=140)	28.86(22.50)		13.14(6.78)	
	맞벌이 (n=146)	23.94(16.09)	-2.132 <sup>*</sup>	15.00(8.43)	2.059 <sup>*</sup>
	결측값 (n=4)				
자녀수	1명 (n=72)	24.44(15.20)		13.96(6.22)	
	2명 (n=179)	25.93(17.80)		13.43(6.97)	
	3명 (n=34)	32.17(32.87)	1.114	17.63(12.18)	3.181 <sup>*</sup>
	4명 (n=3)	18.78(11.93)		11.30(.25)	
	5명 (n=1)	16.49(0)		28.25(0)	
아동 학년	4학년 (n=115)	24.90(16.50)		14.76(8.18)	
	5학년 (n=79)	27.88(20.52)	.546	13.68(7.18)	.674
	6학년 (n=95)	26.34(22.15)		13.69(7.41)	
	결측값 (n=1)				
가족친밀도		r=.037		r=.186 <sup>**</sup>	

†p<.10 \*p<.05 \*\*p<.01 \*\*\*p<.001 주: 가족여가활동 총 횟수(월), 가족식사활동 총 횟수(주)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족친밀도와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친밀도는 가족여가활동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식사활동 빈도와는 약한( $r=.186, p<.01$ )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과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력, 부모의 맞벌이 여부, 자녀 학년과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그리고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인인 사회성은 6가지의 하위영역(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으로 구분지어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Model 1에서 부모학력, 자녀 학년, 맞벌이를 투입하고, Model 2에서 여가활동의 하위영역과 식사활동의 하위영역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인 Model 3에서는 친밀도를 추가 투입하였다.

신뢰성은 가족친밀도를 투입한 결과 Model 1에서 11.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이 투입된 Model 2에서 6.9%의 설명력 증가를 보여 17.9%를 나타내었다. 오락활동( $\beta=.115, p<.01$ )의 경우 미비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람감상( $\beta=.153, p<.05$ )을 적게 할수록 영향과 함께외식( $\beta=.198, p<.001$ )을 할수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 결과 3.6%의 증가하여 2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가족친밀도( $\beta=.198, p<.001$ )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지도성은 Model 1에서는 5.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Model 2에서는 12.8%로 Model 1에서 보다 7%의 설명력 증가를 나타내었다.

Model 3에서 15.2%의 증가로 Model 2 보다는 2.4%의 설명력 증가가 나타났다. 가족친밀도( $\beta=.152, p<.01$ )의 유의미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사교성은 가족친밀도를 투입한 Model 3에서 15.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을 투입한 Model 2에서 보다 1.6%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성은 부모학력, 아동학년, 맞벌이 여부를 통제하고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친밀도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 간의 영화 관람, 연극 관람 등의 관람 감상이 적을수록( $\beta=-.167, p<.01$ ), 그리고 함께외식 빈도가 많을수록( $\beta=.163, p<.01$ ),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준법성은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의 하위 영역을 투입한 Model 2에서 28.8%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F=1.993, p<.05$ ), 이는 통제변인만 투입한 Model 1보다 7.2% 설명력이 증가한 결과이다. 즉, 초등학생 자녀의 준법성은 부모학력, 아동학년, 맞벌이 여부를 통제하고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에 의하여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식사준비를 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beta=.138, p<.05$ ), 그리고 가족의 외식 빈도가 많을수록( $\beta=.149, p<.01$ ), 초등학생자녀의 준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친밀도를 투입한 Model 3에서는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사회성의 하위 영역 중 근면성, 안정성은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과 가족친밀도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족여가활동·가족식사활동 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N=290

변인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18.305		12.659		14.671		17.314		16.525		17.657	
부인학력 <sup>a</sup>	2.460	.391***	2.189	.230**	3.267	.359***	1.546	.216**	2.076	.236**	2.781	.317***
남편학력 <sup>b</sup>	-2.232	-.306***	-.706	-.064	-2.485	-.236**	-.802	-.097	-1.525	-.149	-.626	-.062
아동학년	-.323	-.118*	-.299	-.072	-.711	-.180**	-.078	-.025	-.208	-.054	-1.159	-.304***
맞벌이 <sup>c</sup>	.196	.043	.620	.089	.370	.056	.695	.133*	.880	.136*	.819	.127*
스프츠	-.002	-.006	-.033	-.058	-.001	-.002	.026	.061	.047	.088	.015	.029
취미교양	.004	.011	.034	.062	-.037	-.070	.043	.104	.009	.018	-.017	-.033
오락활동	.049	.115 <sup>†</sup>	-.018	-.028	.025	.040	.032	.067	-.040	-.067	.062	.104
사회활동	.025	.039	.094	.097	.017	.018	-.035	-.048	.053	.059	.014	.016
관람감상	-.139	-.153*	-.317	-.230***	-.031	-.024	-.118	-.114 <sup>†</sup>	-.213	-.167**	-.037	-.029
관람행락	-.018	-.021	.004	.003	.152	.123	-.052	-.053	-.074	-.062	-.026	-.022
쇼핑활동	-.033	-.076	-.046	-.070	-.034	-.054	.020	.040	-.055	-.090	-.004	-.006
종교활동	.012	.016	.037	.034	-.025	-.024	-.054	-.065	-.019	-.019	-.013	-.012
함께준비	-.004	-.005	-.022	-.015	-.006	-.005	-.072	-.066	.110	.082	.188	.141*
가내직사	-.033	-.047	-.099	-.094	-.030	-.029	-.005	-.006	-.042	-.043	-.033	-.034
함께정리	-.051	-.047	-.116	-.070	.039	.025	-.021	-.017	-.201	-.131	-.070	-.046
식후후식	.016	.017	.058	.042	.079	.061	.110	.107	.054	.043	.125	.099
함께외식	.410	.176**	.298	.084	-.039	-.012	.145	.054	.535	.163*	.467	.143*
가족친밀도	.071	.198***	.087	.160**	.117	.225***	.046	.111	.067	.132	.047	.093
Δ R <sup>2</sup>	.036		.024		.046		.011		.016		.008	
R <sup>2</sup>	.215		.152		.215		.132		.158		.296	
Δ F	11.857**		7.149**		15.178		3.348		4.902*		2.914	

† p<10 \*p<05 \*\*p<01 \*\*\*p<001  
 주 1) a)부인학력; l=초대졸 및 대졸이상, 0=고졸 b)남편학력; l=초대졸 및 대졸이상, 0=고졸 c)맞벌이 시행유무; l=맞벌이, 0=맞벌이  
 2) 가족여가활동 총 횟수(월), 가족식사활동 총 횟수(주)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 빈도를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여가활동의 유형은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 활동, 오락 활동, 사교 활동, 관람·감상 활동, 관광·행락 활동, 쇼핑활동, 종교 활동으로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족식사활동은 함께 준비하기, 가정 내 식사, 함께 정리하기, 식후 후식, 함께 외식하기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여가활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 아동학년, 자녀수, 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빈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의 학력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약하게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활동이 많아진다는 남은영·최유정(2008)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가족여가활동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민아·김순옥(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 부모종교, 부연령, 부모직업에 따라 여가활동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여가활동의 빈도는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여가활동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모의 경우 여가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밀린 가사 일을 하느라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도 가정 내에

서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족만의 여가를 스스로 개발하여 가족친밀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식사활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맞벌이 시행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맞벌이 가족일수록 가족식사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맞벌이 가족일수록 함께하는 여가활동시간과 빈도가 적으므로 가족식사활동을 통해서라도 가족들과의 시간과 가족친밀감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의 빈도,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의 하위영역인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사교성, 준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은 사회성 하위영역 중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친밀감도 자녀의 사교성에 미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식사할 때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고 식사 할 장소나 메뉴를 고르는 행위 등으로 인한 가족 간 대화의 증가로 사교성 또한 증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성 하위영역 중 준법성은 가족여가활동과 식사활동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 즉,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식사 준비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함께외식 빈도가 높을수록 준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름의 규칙을 지키고 부모의 지도를 받음으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외식을 하는 경우, 타인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등 지켜야할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관람감상 활동의 경우 가족이 함께 참여하더라도 상호작용 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

동은 노동의 개념 보다는 휴식의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면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성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이 스스로 높게 안정성을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가족여가 참여 유무에 따라 사회성영역 중 사교성, 안정성, 지배성, 활동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오희웅(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상호(2001)의 연구결과 중·고등학생의 여가참여기간이 길수록 사교성이 발달한다고 한 결과와는 일치하고 여가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가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이 안정성과 사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박동선(200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포츠 활동이 사회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며 여가활동 참여빈도와 여가활동 참여시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여가활동과 식사활동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이므로 가족친밀감을 높이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위해서 시간에 쫓기는 바쁜 맞벌이 가족이라도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각각의 가족만의 고유의 여가활동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가족친밀감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식사활동 횟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여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 간에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가 늘어날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자녀 교육기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식사활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가와 식사 활동 시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가족들이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시간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심적인 여유를 갖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에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계층의 가족여가활동이나 가족식사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지역, 계층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의 여가활동과

식사활동에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강원숙·유안진(2000). 지각된 부 / 모의 가치, 부 / 모 -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 / 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38(8), 69-84.
- 2) 김미선(2011). 가족식사 참여도가 식습관, 인성특성 및 푸드 네오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김민정(2008).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보가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4) 김유숙·전영주·김수연(2003). 가족평가핸드북 : 학지사
- 5) 김인창(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친밀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엄마의 국적이 일본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외숙(1997). 가족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필숙, 김태현 (2004).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31.
- 8) 남은영·최유정(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 9) 문화체육부(1995).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
- 10) 박동선(2004).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성 발달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박상호(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0(2), 85-93.
- 13) 박진영(2007). 고등학생의 여가참여가 사회성 발달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2(1), 421-440.
- 14) 보건복지부(2010). 2008 국민건강통계.
- 15) 백윤미(2005). 부와 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성순정·권순자(2010). 혼자 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형태가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 : 대전 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5(2), 206-226.
- 18) 신미숙(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양영아(1996). 중산층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요구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오희웅(2009). 청소년들의 스포츠 가족여가활동과 사회성 및 갈등해결 전략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21) 윤경선 (2009). 부모-자녀 친밀성이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유아교육전공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71-92.
- 22) 윤소영·윤지영(2003). 가족여가의 활동유형 및 본질에 대한 연구. 여가학연구, 1(2), 11-31.
- 23) 이기완·이영미·오유진·조용주·이민주(2008).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에 대한 태도와 혼자 식사와의 영양소 섭취 비교. 대한영양사협회,



- 14(2), 127-138.
- 24) 이민아·김순옥(2007).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10, 1-17.
- 25) 이영미·이기완·오유진(2009). 초등학교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한영양사협회*, 15(1), 41-51.
- 26) 이혜원·최경옥(2010). 아동의 결식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 가족기능의 매개변인 효과. *한국복지학*, 4(28), 37-60.
- 27) 임귀성(1999).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조용주(2007).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영양소섭취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지영숙·이태진·김선미·전희정·최보아(1999).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83-94.
- 30)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 : 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31) 지영숙·이태진·최보아(2002). 가족여가 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녀 교육기의 도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89-196.
- 32) 지효숙(2007).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친밀도 및 사회성과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천혜정(2004a).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1-13.
- 34) 천혜정(2004b). 우리나라 가족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제약 요인. *인간생활환경연구소*, 3, 11-24.
- 35) 홍성화(2003). 가족단위 여가활동 참여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57-71.
- 36)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37) SBS스페셜제작팀(2010).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리더스북.
- 38) Bengtson, V. L. & Culter, K. D.(1976).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Y.: Van. Nostrand Reihold Co.
- 39) Bengtson, V. L., & Schrader S.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Research instrument in social gerontology 2*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40) Kelly, J. R.(1983).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Boston : Allen and Unwin.
- 41) Kidshealth (2008). <http://kidshealth.org/parent/food/general/familymeals.html>.
- 42) Noller, P., Seth-Smith, M., Bouma, R., & Schweutzer, R. (1992).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 101-114.
- 43) Orthner, D. K. & Mancini, J. A.(1990). Leisure impact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1), 125-137.
- 44) Ramon, B.Z. & Bryan P.M.(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281-289.
- 45) Robertson, B.J.(1999). Leisure and family: Perspectives of male adolescents who engage in delinquent activity a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 335-358.
- 46) Lisa A. B. & Ross D. P.(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3),

593-608.

47) Weinstein M (2006). 부부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가족식사의 힘(김승환 역). Seoul :  
한스미디어.

- 투 고 일 : 2011년 6월 17일
- 심 사 일 : 2011년 7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22일